

이슈 브리핑

●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- (EV) 프랑스, 저소득층 위한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 운영
- (탄소배출) ICCT, 차량의 공인 탄소배출량과 실 배출량 간의 갭 증가 가능성 제기
- (탄소중립) BMW 그룹, 내부 평가 결과 '23년 EU 차량 탄소배출량 최저치 기록

● 자율주행 / SW / 미래모빌리티

- (SDV) Sony Honda Mobility, SW 바탕으로 HW 설계하는 'AFEELA'
- (ADAS) Tesla, 기존 차량의 Full Self Driving(FSD) 기능 신차로 이전 재개
- (자율주행) Geely, 자율주행용 저궤도 위성 11개 발사

●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

- (Continental) 인도 지사, 제어장치/센서 역량 강화로 올해 12% 성장 목표
- (Valeo)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위해 첸나이 그룹기술센터(GTC) 확장 추진
- (Infineon-Honda) 차세대 자동차 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

친환경차 / 탄소중립

◆ (EV) 프랑스, 저소득층 위한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 운영

- 프랑스는 저소득층(연간 개인 소득 €15,400 이하)을 위한 전기차 리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계약금 없이 월 최저 €40(약 57,630원)에 차량 운용 가능(Renault 'Twingo' 기준)
 - * 대상 차량은 가격 €47,000 미만 및 중량 2,400kg 이하여야 하며, 신청자는 직장과 거주지 간의 거리가 15km 이상 또는 연간 주행거리가 최소 8,000km이어야 함(12,000km 초과시 추가금 부과 가능)
 - ** 리스 기간은 최소 3년으로 정부가 차량 1대당 €13,000까지 계약금과 리스비를 지원하며(올해 총 지원대수 25,000대), '24년부터 소득이 €15,400 미만인 모든 프랑스 국민에게 확대 적용 예정
- Stellantis가 차량 2만대 주문을 既 확보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예정이며 적용 가능 차종에는 Hyundai Kona, Nissan Leaf도 포함되나 기타 아시아산 전기차의 경우 新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환경 점수 미달*로 인해 제외될 전망
 - * '24.1월 개시된 新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동일하게 60점 이상(80점 만점)의 환경 점수를 받은 차종만이 리스 적용이 가능한데, 아시아산 전기차는 생산·운송 과정에서 탄소를 다량 배출하여 기준 충족이 어려울 전망
 - ※ Automotive News Europe('24.1.31.) <https://europe.autonews.com/environment/emissions/how-france-helping-lower-income-households-drive-evs>

◆ (탄소배출) ICCT, 차량의 공인 탄소배출량과 실 배출량 간의 갭 증가 가능성 제기

- 비영리기관 국제청정교통위원회(ICCT)에 따르면 EU 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차의 공인 탄소배출량(WLTP)과 실 배출량 간의 갭은 '18년 7.7%에서 '22년 14.1%로 증가함
 - * WLTP 기준 '22년 차량의 탄소 배출량은 '18년 대비 7.3% 감소했으나 ICCT에 따르면 실제로는 2.3% 감소
- 제조사별로는 '22년 기준 Opel이 21%로 갭이 가장 커고 Hyundai가 20%로 그 뒤를 이었으며, Mercedes가 11%로 가장 적었음(9개사 평균 14%)
 - * 관련하여 EU는 '21년 신차에 연료 및 에너지의 실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치(OBFCM)의 탑재를 의무화하였는데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'30년경 상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
 - ※ ICCT('24.1.30.) <https://theicct.org/publication/real-world-co2-emission-values-vehicles-europe-jan24/>

◆ (탄소중립) BMW 그룹, 내부 평가 결과 '23년 EU 차량 탄소배출량 최저치 기록

- BMW의 예비 계산에 따르면 '23년 당 그룹의 EU 내 차량 총 탄소배출량(신차 기준)은 전년(105g/km) 대비 2.8% 감소한 102.1g/km(WLTP)로 사상 최저치를 달성함
- 탄소배출 저감에는 당 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주효하였는데 '23년 총 376,183대의 BEV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전체 시장(30%*)보다 높은 판매 증가율(74.4%)을 기록함
 - * 뱅크오브아메리카(BoA) 조사 기준

※ BMW Group('24.1.30.) <https://www.press.bmwgroup.com/global/article/detail/T0439276EN/bmw-group-continues-to-reduce-eu-co2-fleet-wide-emissions-in-2023?language=en>

◆ (SDV) Sony Honda Mobility, SW 바탕으로 HW 설계하는 'AFEELA'

- 일반적인 자동차 개발*과는 다르게, 'AFEELA'는 SW 업체가 Sony Honda Mobility와 함께 Tier 0.5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전체적인 사양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Tier 1 회사가 HW를 설계하는 구조**로 개발 중

* 일반적인 개발에서는 HW를 담당하는 Tier 1이 반도체 등 HW를 선택하면, SW 업체가 Tier 2 또는 3의 위치에서 HW 제약에 맞춰 개발을 진행. 이러한 구조에서는 Tier 1이 비용 관점에서 최소한의 성능을 갖춘 반도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SW 기능 추가 등에 어려움이 존재

** Continental의 자회사 Elektrobit(SW 기업)가 운전석 아키텍처와 SW-HW 사양을 수립하고 소스코드 개발. 이를 바탕으로 Alps Alpine(HW 기업)이 대형 디스플레이를 배치한 조종석 및 ECU 등 하드웨어 부품 담당

- Nikkei Mobility는 이러한 HW, SW 기업 간의 역할 분할에 주목하면서 향후 공급망 변모의 가능성 있다고 진단

※ Nikkei Mobility('24.2.5.) <https://www.nikkei.com/prime/mobility/article/DGXZQOUC2313U0T20C24A1000000>

◆ (ADAS) Tesla, 기존 차량의 Full Self Driving(FSD) 기능 신차로 이전 재개

- '16년부터 FSD에 대해 인간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능을 약속해 왔지만 진전이 없자 소비자는 신차에 FSD 이전을 요청했으며, '23.Q3에 한시적으로 FSD를 이전할 수 있게 하고, 최근 '24.3.31까지 FSD 기능 이전을 재개함

* Elon Musk는 처음 기능 이전을 허용할 때 일회성 조치임을 강조하였고, Electrek은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수요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, 자율주행 약속 이행시까지 기능 이전을 계속 해야한다고 보도

- 기존 차량에 FSD 및/또는 무료 SuperCharging(급속충전)이 적용되는 경우, 기존 차를 보상판매하거나 기존 차의 해당 기능 포기 계약을 하면, 새 차에 기능을 적용 할 수 있음

* 현재 FSD 기능 구매 가격은 최대 1.5만 달러이고, 기능 이전은 'Cybertruck' 외 모든 신차에서 적용됨

※ Electrek('24.2.5.) <https://electrek.co/2024/02/05/tesla-brings-back-fsd-free-supercharging-transfer-despite-what-elon-said/>

◆ (자율주행) Geely, 자율주행용 저궤도 위성 11개 발사

- 동사는 '25년까지 인공위성 72개를 궤도에 올리고, 향후 240개 보유 계획을 밝힘('24.2.3.)

* 첫 발사는 '22.6월에 이루어졌으며, 이번이 두 번째 발사임

* 중국은 '14년부터 우주산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했으며, 중국 언론에 따르면 상업 위성 포함 인공위성 400개 이상 보유

- 자율주행차의 고정밀 위치 추적을 지원하고,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 가전과 연결 같은 다른 상업적 기능도 제공할 예정

* 위성은 AI 원격 감지 기능으로 1~5m의 고해상도 원격 감지 이미지 생성

※ Reuters('24.2.1.) <https://www.reuters.com/technology/space/chinas-geely-launches-11-low-orbit-satellites-autonomous-cars-2024-02-03/>

◆ (Continental) 인도 지사, 제어장치/센서 역량 강화로 올해 12% 성장 목표

- Continental 인도 지사는 표준 6-에어백 차량 대중화에 따른 에어백 컨트롤러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제품 제조역량을 강화하고, 벵갈루루, 마네사르 공장 중심으로 전년 대비 12% 성장 목표 제시

* 에어백 제어장치(ACU) 200만개→'24년 350만개, 텔레매틱스 제어장치(TCU) 100만개 미만 새로운 생산라인 →최종 200만개,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(TPMS) 센서 400만개→'25년 말 1,000만개로 확장 생산 계획

* Continental 인도 지사는 CY23 전년 대비 시장 성장률의 두 배에 달하는 18~20% 성장하였으며, CY24 승용차 시장 성장을 5~7%로 둔화 예상되지만, 인도 지사장은 동사 인도 지사 성장을 10~12%로 전망

- 또한, 동사는 차량 연결성 증가에 대비하여 향후 2~3년 내 출시를 목표로 차세대 차량용 고성능 컴퓨터(HPC)를 개발 중이며, ADAS 기능이 의무화되어 관련 제품 매출 성장 예상

※ AUTOCAR Professional('24.2.2.) <https://www.autocarpro.in/news-national/continental-india-targets-12-growth-in-cy2024-expand-acu-tcu-and-tpms-capacity-118972>

◆ (Valeo)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위해 첸나이 그룹기술센터(GTC) 확장 추진

- Valeo는 인도 첸나이 그룹 기술 센터(GTC)를 확장하고, 1,000개 이상의 워크스테이션을 갖춘 인프라를 바탕으로 HIL/SIL* 검증 및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운영하며,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인력 통합·인재유치·협업 등 추진 계획

* Hardware-in-the-Loop: 하드웨어 기능 시뮬레이션, Software-in-the-Loop: 소프트웨어 기능 시뮬레이션

- GTC는 대부분 제품 및 플랫폼 핵심인 운전자 지원 시스템, 도메인 및 구역 컨트롤러, 변압 시스템, 열관리 솔루션, 스마트 조명 기술 등에 기여함

* 동사는 AI 애플리케이션, 데이터 사이언스, 신뢰성, 디지털화, 컴퓨터 비전, 클라우드 컴퓨팅, 디지털 트윈 및 시뮬레이션, 칩셋 설계, 사이버 보안, 기능 안전 및 SDV 핵심 기술 분야 성장을 도모할 것을 언급

※ ET Auto('24.1.31.) <https://auto.economictimes.indiatimes.com/news/auto-technology/valeo-expands-group-technical-centre-in-chennai/107294936>

◆ (Infineon-Honda) 차세대 자동차 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

- 반도체 기업 Infineon은 일본 완성차업체 Honda와 자율주행 전기차 등 차세대 자동차 분야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(MOU) 체결

- 이번 협력은 안정적인 반도체 조달을 목표로 하며, 전력 반도체, ADAS, E/E 아키텍처 등의 분야에 대해 개발 단계부터 협력을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예정

※ Nikkei('24.2.1.) <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XZQOUC019AQ0R00C24A2000000/>

DgTimes Asia('24.2.2.) <https://www.dgtimes.com/news/a20240202M.204/infineon-honda-strategic-partnership-automotive-semiconductor-solutions.html>